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Learned Helplessness and Failure Tolera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박 경 환[†] 한국디지털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parkh@kdu.ed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ifelong learners' learned helplessness and failure tolerance on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exhibits that learned helplessness has negative effec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Failure tolerance, however, has positive effec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job performance. In additi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has mediated between learned helplessness and/or failure tolerance, and job performance. This study suggests that lifelong learners' positive response to failures is helpful for both learning and working performances.

Keywords : Learned Helplessness, Failure Tolerance, Academic Achievement, Job Performance

1. 서 론

지식산업사회가 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평생학습자(lifelong learner)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래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란 한 개인의 생애 전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정규·비정규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김영옥, 2007). 개개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학교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후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1972년 방송통신대학교가 설립된 이래 2001년도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사이버대학이 설립되어 평생교육은 학위 취득과 함께 직업을 위한 재교육의 중

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평생학습자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 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그들은 직장과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하는 장애물 경기(hurdle race)의 선수와 같다. 배우면서 일을 해야 하는 복수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일터와 학교에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의 학습과 직장의 업무수행에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하지만 때로 학교 또는 직장 두 곳 모두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과제 수행의 실패는 좌절감을 갖게 하여 이 후의 과제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들에게 있어서 실패에 대한 반응과 대처는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실패와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과제 수행에

[†] 제1저자

논문접수일 : 2007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2008년 6월 3일

서의 성공적인 경험은 자신감 등과 같은 동기부여 효과를 가져와 후속 과제의 성공에 더욱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과제 수행에서의 반복적인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갖게 하여 차후 과제 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Seligman, 1975; 김아영, 1997; 김아영, 주지은, 1999; 김아영, 2002).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반복적인 실패 경험을 하는 평생학습자는 직장에서 낮은 업무성과와 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패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Clifford, 1984; 김아영, 주지은, 1999).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건설적 실패(constructive failure)라고 불렀는데, 실패경험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라고 하였다(Clifford, 1984; Kim and Clifford, 1988).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학습된 무기력과 같이 항상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실패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이는 평생학습자는 학교와 직장 모두에서 높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반복적 실패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평생학습자는 직무성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성적도 낮을 것이고, 실패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실패내성이 높은 평생학습자는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직무성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평생학습자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관심은 직장파 학교에서의 성과지표인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가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이다. 직무성과와 학업성취도를 동시에 높여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어떤 평생학습자는 두 분야 모두에서 성공하는가 하면, 어떤 평생학습자는 둘 중의 어느 하나에서, 또 다른 평생학습자는 두 곳에서 모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과 노력 등 자원이 한정적으로 주어진 평생학습자는 직

장과 학교 중 어느 한 곳에 자원을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의 자원 투자가 어려워 학교에서의 성과와 직장에서의 성과 지표 간에 서로 상충(相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맞다면, 직무성과가 높은 사람은 학업성적이 낮을 것이고 직무성과가 낮은 사람은 학업성적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에서 성공적인 사람은 학교에서도 높은 학업 성적을 거두고, 직장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학업에서도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 원인은 평생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정된 자원 활용이라는 제약의 물리적 조건의 어려움 보다는 이를 극복하게 하는 뭔가의 개인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앞에서 언급한대로 실패에 대해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개인성향을 갖고 있는 평생학습자는 일과 학습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원 제약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업과 직무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때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는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 원인은 실패내성과 같이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개인 고유의 특성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 두 결과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하나의 관심은 학업성취도가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학사학위를 받는 평생학습자는 직업적 요구에 의하여 전공분야를 학습 하는 것으로 그 학습 결과인 학업성취도는 궁극적으로 직무성과에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공 분야의 학습 결과는 학습전이(transfer of learning)에 의하여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학업성취도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직장과 학교에서 도전적 과제에 직면하는 평생학습자의 실패에 대한 반응성향 즉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이 일관되게 그 결과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즉,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고, 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구에 유의하게 양(+)¹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는 실패에 대한 개인의 반응성향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 두 결과변수에 일정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두 결과변수 간의 관계가 양(+)²의 상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즉 시간과 에너지 등 한정된 자원을 학교와 직장에 배분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적 조건보다는 실패에 대한 반응성향과 같은 개인 고유의 특성이 두 결과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업성취도가 직무성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학위 과정의 평생학습은 궁극적으로 직무성구를 높이고자 전공분야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학습결과인 학업성취도는 목적인 바 직무성구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인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이 결과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구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학업성취도는 직무성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을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모형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해 본다.

본 연구의 가설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직장인이며 동시에 4년제 사이버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189부의 설문서를 수집하였다. 가설과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설정

1. 학습된 무기력과 성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혐오적인 사건에 직면하여 자신의 반응으로 미래의 결과를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즉 반응과 결과가 비유관적(non-contingent) 일 것이라는 기대에서 무기력이 발생한다(Seligman, 1975; 박미은, 1998; 김영희, 2000). 인간에게 있어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은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잘못된 탐지와 인지과정에 의해 초래되며,

동시에 사람들이 현재 경험하는 통제 불능의 경험을 미래에서도 통제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는 데에서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한다(김아영, 주지은, 1999).

학습장면에서 반복적인 실패 경험은 학습자의 동기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과에 대한 통제가 계속적으로 불가능한 실패 상황에 노출된 학습자는 후속 수행에서 학습 동기를 상실하고 정서적인 손상과 수행의 저하를 보인다(Abramson, Seligman, and Teasdale, 1978; Boyd, 1982; Fosco and Gear, 1971; Frankel and Snyder, 1978; Hiroto, 1974; Hiroto and Seligman, 1975; Sedek and Kofta, 1990; Kuhl and Weiss, 1984; Roth and Kubal, 1975; 김아영, 2002). 이와 마찬가지로 작업장에서도 결과에 대한 통제가 계속적으로 불가능한 실패상황에 노출된 작업자는 후속 수행에서 작업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고 정서적인 손상과 수행의 저하를 보인다(박경환, 2006).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에 빠진 평생학습자는 학업성취에서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직장내 학교에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평생학습자는 직무수행과 학업에서 실패한 과거의 경험들에 근거하여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각함으로써 학업과 직무수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평생학습자는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도 낮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성취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학습된 무기력은 직무성구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실패내성과 성과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많았다(김아영, 1997). 실패에 대한 귀인을 외부로 바꾸거나(Dweck, 1975),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실패경험

을 줄이고 성공경험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학생들이 실패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스스로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을 길러 무기력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모든 실패 경험이 행위자에게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경험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달리 실패 경험이 후속적인 과제수행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이다(Kuhl, 1981; Roth and Kubal, 1975; Tennen, Drum, Gillen, and Stanton, 1982; Thornton and Jacobs, 1972; Wortman and Brehm, 1975; Abramson, Seligman, and Teasdale, 1978; Boyd, 1982; Fosco and Gear, 1971; Frankel and Snyder, 1978; Hiroto, 1974; Hiroto and Seligman, 1975; Sedek and Kofta, 1990; Kuhl and Weiss, 1984; 김아영, 주지은, 1999; 김아영, 2002).

Wartman and Brehm(1975)는 자아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 반응을 심리적 반작용의 견지에서 해석하였다. 사람은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끼게 되는 실패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패 경험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Clifford(1984)에 의하여 건설적 실패(constructive failure)의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실패 경험이 항상 무기력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조규선, 2000; 김아영, 2002). Kim and Clifford(1988)는 실패 후에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동기부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건설적 실패 경험과 관련된 개인차 변인으로서 실패에 대한 내성(failure tolera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실패에 대한 내성을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김아영, 주지은, 1999; 김아영, 2002). 실패에 대한 내성은 개인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보이는 감정적 반응과 주어진 실패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행동적 반응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실

패는 누구에게나 혐오적인 경험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혐오감을 특히 심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감정 상태를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의 상황에서는 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실패경험 이후에도 자신이 도전해 볼 만한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지닌 과제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김아영, 2002). 이 연구들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이 예측하는 것과 달리 실패경험이 후속적인 과제수행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김아영, 2002).

실패에 대한 내성은 개인이 실패경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에 따라 서서히 형성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실패 후에 무기력해지느냐 건설적으로 대처하느냐를 예측할 수 있는 개인차 변수로 볼 수 있다(Kim and Clifford, 1988; 김아영, 1994; 김아영, 2002; 김아영, 주지은, 1999; 조규선, 2000). 이러한 실패내성은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 또는 태도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특성이고 그 경향성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된다(김아영, 2002). 실패내성 척도는 과제수준선호(task difficulty preference), 감정(feeling), 행동(behavior)의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아영, 2002).

실패에 대한 내성은 실패상황에 노출되고 난 후의 피험자들의 감정적 반응과 행동적 반응을 잘 예언해주었으며,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실패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임하였다(Kim and Clifford, 1988; Clifford, Kim, and MacDonald, 1988; 이연숙, 2002).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학습상황에서의 학습자의 실패내성이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1997; 김아영, 2002; 김아영, 주지은, 1999). 실패내성은 과제에 대한 흥미도(Clifford et al., 1988), 학업 성취도와 적응(Clifford, Fick, and Bennett, 1991; 김아영, 2002)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실패내성은 일반적으로 자

아효능감이나 내재적 통제감보다 더 잘 학업성취도를 예언하였으며(김아영, 1997), 실패내성이 높은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덜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주지은, 1999; 김아영, 2002).

또한 직장상황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실패내성과 직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상사평정 직무성과와 자기보고식 직무성과가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조규선, 2000). 학교와 직장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평생학습자는 실패에 대한 반응성향으로서 실패에 대하여 건전하게 반응할수록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와 직장에서의 직무성과가 높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 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실패내성은 직무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자의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이라는 개인 고유의 특성이 학교와 직장이라는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그 성과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여기서는 학교와 직장이라는 다른 환경에서 평생학습자의 성과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두 결과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패 반응성향이라는 개인 고유 특성 변수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평생학습자는 직무수행 및 학습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두 곳에 배분해야 한다. 자원의 배분은 상쇄(trade-off)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성과는 다른 한쪽의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그러나 실패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개인 고유의 성향은 학교와 직장

<표 1>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 관련 선행연구 비교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의 특징
학습된 무기력	학업성취도/적응	Seligman, 1975; Boyd, 1982; 박미은, 1998; 신기명, 1990 등.	학생/ 직장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적인 실패경험은 학습된 무기력을 갖게 하고, 이는 학습자의 동기와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개념은 실패경험의 긍정적 측면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직무성과	박경환, 2006		
실패내성	학업성취도/적응	Clifford, 1984; Kim and Clifford, 1988; 김아영, 2002 등.	학생/ 직장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패경험이 어떤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하도록 한다.
	직무성과	조규선, 2000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	학업성취도/적응	김아영, 주지은, 1999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동기 변수로서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직무성과	-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	학업성취도/적응	본 연구	평생 학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가 음(-)의 관계인지 양(+의 관계인지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학교와 직장이라는 환경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실패에 대한 반응성향과 같은 개인고유의 특성이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직무성과			

두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면서 갖게 되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쪽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얻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반대로 학습된 무기력이 높은 평생학습자는 주어진 한정적 자원의 한계와 같은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업성취도와 직무성도가 모두 낮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개인 특성변수가 성과 변수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기업 판매원에 대한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다(손준상, 2001).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도에 각각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학업성취도와 직무성도가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면 직장내 학교에서 상호 상충되는 자원투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인 고유의 특성 변수가 이를 극복하게 하는 힘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평생학습자는, 특히 학위과정의 전공 학습자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직무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직무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학업성취도는 학습의 전이(transfer of learning) 현상에 의하여 직무성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습전이란 어떤 내용을 학습한 결과가 다른 학습이나 반응에 영향을 주는 현상으로서(주용석, 2003), 학습전이 현상에 의하여 평생학습 기관인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직무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5 : 학업성취는 직무성도에 정적(+의)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과 분석기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현재 직업을 갖고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사이버대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을 정의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중 학위과정으로 인가를 받은 사이버대학의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5년 5월과 2006년 6월 2차례에 걸쳐 320부를 수집하였다. 이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성적 평균평점을 기록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으며, 일부 부실한 응답을 한 설문서도 제외하여 총 189부가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사용된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나이는 평균 37.1세로 18세부터 57세까지 골고루 분포하였다. 성별은 남자가 146명으로 77.2%, 여성이 43명으로 22.8%를 차지하여 남성이 많았다.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7명으로 14.3%, 2학년 23명으로 12.2%, 3학년 64명으로 39.2%, 4학년 75명으로 39.7%를 차지하였다. 응답자 소속 기업 규모는 소기업 65명으로 34.4%, 중기업 69명으로 36.5%, 대기업 55명으로 29.1%를 차지하여 규모별 비슷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근속년수는 평균 4.7년으로 1년부터 23년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의 수행 직무는 사무직 74명으로 39.2%, 생산직 7명으로 3.7%, 부서장급 이상 관리층이 67명으로 35.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되었다. 생산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9판을 사용하여 기초 통계분석과 상관분석 그리고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확인적요인 분석과 가설 및 모형 검증은 LISREL8판을 이용하여 공변량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변수의 측정과 신뢰도

2.1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이란 ‘반복적인 실패경험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실패할 것이라 기대감을 갖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한다(김아영, 1997). 학습된 무기력의 측정은 신기명(1990)에 의해 개발한 척도를

김아영, 주지은(1999)이 수정하여 사용한 45문항에서 18문항을 뽑아 사용하였다. 신기명(1990)은 학습된 무기력을 자신감 결여, 우울과 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책임성 결여의 7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김아영, 주지은(1999)이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요인분석 한 결과에 의하면 우울과 부정적 인지, 자신감 결여, 통제 및 지속성 결여가 주요 요인으로 나와 이와 관련된 18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우울과 부정적 인지, 자신감 및 지속성 결여, 그리고 집중력과 의욕 상실의 3요인을 도출하였다. 우울과 부정적 인지에 관한 질문 문항의 예를 보면 ‘사소한 일에도 슬프고 쓸쓸해진다.’, ‘즐거운 일보다 슬픈 일을 더 많이 생각한다.’ 자신감과 지속성 결여 관련 문항은 ‘자신 있게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잘되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 집중력과 의욕상실 관련 문항은 ‘한 가지 일에 몰두하지 못한다.’, ‘일에 전념하기가 어렵다.’와 같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학습된 무기력 척도의 내부일치도(internal consistency)에 의한 신뢰도는 .90이었다.

2.2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

실패에 대한 내성이란 ‘실패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Kim and Clifford, 1988; 김아영, 2002). 실패에 대한 내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Clifford (1988)는 ‘Academic Failure Tolerance Scale’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아영(1994)은 한국형 ‘학구적 실패내성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후 김아영(1997, 2002)과 성태제(1998)는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실패내성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조규선(2000)은 김아영(1997)의 학구적 실패내성을 직무상황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조규선(2000)의 실패내성에 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과제수

준번호, 감정, 행동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져 모두 18 문항이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감정차원은 학업 성취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여(김아영, 2002)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제수준번호의 6문항과 행동차원에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2개 문항을 제외한 4개 총 10문항을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과제수준 번호 질문 문항의 예를 보면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과제나 문제가 재미있다.’ 행동차원 문항은 ‘나쁜 평가나 점수를 받으면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려고 결심한다.’와 같다.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척도로 하였다. 척도의 문항 간 내부 일치에 의한 신뢰도 .82이었다.

2.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개별 응답자가 학업성적을 설문서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점수는 4.5점 만점에서 응답자가 취득한 평점을 사용하였다. 학교 성적이 학업성취도를 제대로 반영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예외로 하고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객관적 지표를 따르기로 하였다.

2.4 직무성과

평생학습자의 직무성과는 자신이 속한 직장 동료와 비교한 자신의 상대적 기여도를 주관적으로 측정하였다. Behrman and Perreault(1982)의 연구에 의하면 성과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신뢰성 높은 척도로서 자기평가(self report)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손준상, 2001). 본 연구에서의 직무성과는 김대복(2004), 김영형(1999), 배오식(2001)의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성과 차원을 정리하여 새롭게 직무성과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관적 자기보고식 직무성과 척도는 직장 동료와 비교한 수행 업무의 양, 수행 업무의 질, 목표 달성 기여도, 작업일정 완수율, 문제의 성공적 해결, 생산성 기여도 인식, 그리고 전반적 업무성과를 묻는 7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문항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결과물의 양과 질, 전반적 업무성과의 2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질문 문항의 예시를 보면, ‘나의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업무수행 결과물의 가치나 질이 높은 편이다.’ ‘나의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의 전반적 업무성과는 우수한 편이다.’와 같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하였다. 척도의 내부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는 .86이었다.

3. 척도의 타당성 분석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8판을 이용한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기법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method : M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모델에서 학업 성적을 이용한 학업성취도 변수를 제외하고 3개의 이론변수(latent variable)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 직무성과 3개의 이론변수는 7개의 측정변수(measured variable)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3개의 이론변수는 모두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로 간주하여 상호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외생변수의 공변량의 대각선은 1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이순목, 1990).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과 부정적 인지, 자신감 및 지속성 결여, 집중력과 의욕 상실의 3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실패내성은 과제수준선호와 행동차원의 2개의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성과는 결과물의 질과 양, 전반적 업무성과의 2개의 측정변수로 되어 있다.

분석결과 학습된 무기력의 3개 측정변수 요인 적재치는 각각 .59, .47, .76이었다. 실패내성 2개의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치는 각각 .45, .60이었다. 직무성과 2개의 측정변수 요인 적재치는 각각 .85, .82이었다. 요인 적재치는 전반적으로 .3을 넘어 각 이론변수를 재기 위하여 사용한 측정변수로 양호하였다. 다

음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communality)를 보면 학습된 무기력의 3개의 측정변수 다중상관자승치는 각각 .35, .22, .57이었으며, 실패내성 2개의 측정변수 다중상관자승치는 각각 .21, .36이었다. 직무성과 2개의 측정변수 다중상관자승치는 각각 .72, .68이었다. 이중 학습된 무기력 2번째 측정변수와 실패내성 2개의 측정변수의 다중상관자승치가 낮아 보이나 앞의 요인계수와 함께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각 이론변수에 대한 측정변수 각각의 고정지수(t-value)가 모두 5.8에서부터 11.9까지 걸쳐 있으며, 또한 각 이론변수에 대한 측정변수에 대한 각각의 추가지수(modification index)는 6에서 0.3의 범위에 들어 있어 전반적으로 측정변수의 이론변수에 대한 변별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학습된 무기력을 재는 측정변수인 자신감 및 지속성 결여가 이론변수인 실패내성과의 관계에서 추가지수가 10보다 큰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론변수인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이 부분적으로 구성개념 간 중복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습된 무기력 2개의 측정변수와 실패내성 2개의 측정변수는 각각의 이론변수에 대해서 서로 수렴과 변별 타당성을 갖고 있어서 전체 연구모형의 결과를 왜곡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공변량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는 $\chi^2 = 29.4$ (d.f. = 11, p = .00), GFI = .96, AGFI = .89, RMR = .05, NFI = .92, NNFI = .89로서 χ^2 값을 제외한 다른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했다.

추가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학습된 무기력의 경우 18문항 중 3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의 63%를 설명하였다. 실패내성의 경우 전체 10문항 중 2개의 요인에 의해 전체변량의 59.5%를 설명하였다. 직무성과는 7개의 문항 중 2개의 요인에 의해 전체변량의 66.9%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체 7개의 측정변수는 3개의 이론변수에 의해 전체 변량 중 70%가 설명되었다. 따라서 7개의 측정변수는 각각의 이

론변수를 전반적으로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김아영(2002), 김아영과 주지은(1999) 등의 여러 연구의 이론과 개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척도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의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살펴보면, 나이는 학습된 무기력과 -.16, 직무성취와 .28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 주었으나 실패내성과 학업성취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지 않았다. 근속년수는 직무성취와 .25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 주었으며, 나머지 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남녀 간의 학습된 무기력에서는 남성이 평균 2.26, 여성이 평균 2.55로서 두 집단 평균 비교에서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실패내성에서는 남성이 평균 3.48, 여성이 평균 3.29을 보여주어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성취에 있어서는 4.5점 만점에 남성은 3.70, 여성은 3.64로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성취는 남성은 평균 3.67, 여성은 평균 3.47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업규모별로 보았을 때 학습된 무기력은 소기업이 평균 2.42, 대기업이 2.15로서 소기업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실패

내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직무성취는 소기업 평균 3.43, 중기업 평균 3.63, 대기업 평균 3.85로서 3집단 모두 직무성취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규모별 학업성취도에 있어서는 중기업이 평균 3.6, 대기업이 평균 3.81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과 직종별로는 여러 변수 간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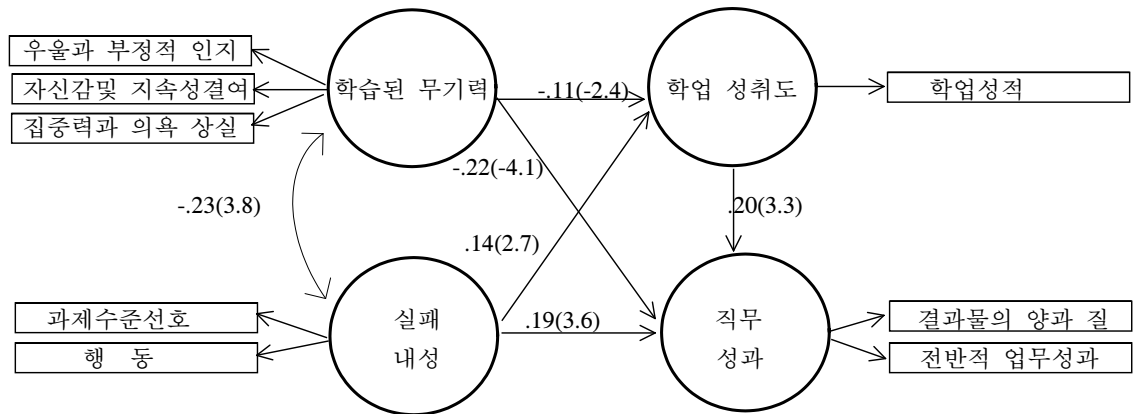
주요 변수의 평균은 5점 척도로서 학습된 무기력 2.33(표준편차 .54), 실패내성 3.43(표준편차 .44), 직무성취 3.63(표준편차 .48)이었다. 학업성취도는 4.5 만점에 3.68(표준편차 .46)이었다. 비교적 모든 변수가 중앙값 3.0을 넘었으나 학습된 무기력은 평균 2.3으로서 낮은 편에 속했다.

상관 분석결과 학업성취도는 직무성취와 .29, 학습된 무기력과 -.22, 실패내성과 .29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직무성취는 학습된 무기력과 -.45, 실패내성과 .37의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었다<표 2>. 상관계수를 볼 때, 실패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성취도 및 직무성취와 통계적으로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 및 직무성취에서 모두 정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직무성취 간에는 .29의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두 결과변수 중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과 같은 개인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계수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나이	근속년수	학업성취도	직무성취	학습된무기력
나이	37.1	7.5					
근속년수	57.4	66.1	.275***				
학업성취도	3.68	.46	.108	.003			
직무성취	3.63	.48	.298***	.257***	.293***		
학습된무기력	2.33	.54	-.163*	-.074	-.224**	-.452***	
실패내성	3.43	.44	.079	.079	.291***	.376***	-.390***

주) * p < .05, ** p < .01, *** p < .001.



주) ()은 t값으로 절대값 2보다 크면 $p < .05$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연구모형의 경로와 유의수준

고유의 특성이 두 결과변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은 상관계수 $-.39(p < .05)$ 수준으로 상호 유의한 부적(-)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김아영과 주지은의 연구(1999)에서는 $-.45$ 에서 $-.55$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학습된 무기력이 높을수록 실패 내성이 낮으며,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실패에 대한 평생학습자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성과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가 낮고,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그 성과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가 높은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평생학습자에게 있어서 시간과 노력 등 한정된 자원의 제약이라는 환경 속에서 두 성과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직장과 학교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평생학습자의 실패에 대한 반응양식에 따라 학업성취

도와 직무성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웠다. 즉, 실패에 의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평생학습자는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가 유의하게 낮을 것이며, 실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실패내성이 높은 평생학습자는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가 유의하게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학업성취도는 직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각 이론변수들 간의 전체적인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다변량 분석기법인 공변량구조모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는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 두 개의 변수이다. 학습된 무기력은 우울과 부정적 인지, 자신감 및 지속성 결여, 집중력과 의욕의 상실이라는 3개의 측정변수로 되어 있다. 실패내성은 과제수준선호와 행동차원의 2개의 측정변수로 되어 있다.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는 학업성취도, 직무성과의 2개의 이론변수로 되어 있다. 학업성취도는 학교성적이라는 1개의 측정변수로 되어 있다. 직무성과는 결과물의 양과 질, 전반적 업무성과의 2개의 측정변수로 되어 있다.

가설검증을 위한 모형분석은 최대가능법(maximum

<표 3> 가설 검증결과와 모델 부합도

가 설	경 로	방 향	경로계수	t값	검증결과
1	학습된 무기력 → 학업성취도	-	-.11	-2.42*	채택
2	학습된 무기력 → 직무성공	-	-.22	-4.16**	채택
3	실패내성 → 학업성취도	+	.14	2.75**	채택
4	실패내성 → 직무성공	+	.19	3.69**	채택
5	학업성취도 → 직무성공	+	.20	3.38**	채택

<전반적 모델부합도>
 $\chi^2 = 17.44$ (d.f. = 12, p = .13), GFI = .98, AGFI = .93, RMR = .03, NFI = .95, NNFI = .96

주) * p < .05, ** p < .01.

likelihood method : ML)을 사용하였다. 모형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가설 1>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채택되었다($r_{11} = -.11$, $t_{값} = -2.42$). 학습된 무기력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학습된 무기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 ‘학습된 무기력은 직무성공에 부정(-)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r_{21} = -.22$, $t_{값} = -4.16$). 학습된 무기력은 직무성공에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학습된 무기력이 높을수록 직무성공은 유의하게 낮았다.

<가설 3> ‘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r_{12} = .14$, $t_{값} = 2.75$). 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유의하게 높았다.

<가설 4> ‘실패내성은 직무성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r_{22} = .19$, $t_{값} = 3.69$). 실패내성은 직무성공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직무성공은 유의하게 높았다.

<가설 5> ‘학업성취도는 직무성공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도 채택되었다($\beta_{21} = .20$, $t_{값} = 3.38$).

본 연구모형의 전체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 =$

17.44(d.f. = 12, p = .13), GFI = .98, AGFI = .93, RMR = .03, NFI = .95, NNFI = .96으로 나타났다. χ^2 값의 유의수준이 .05보다 크고, RMR이 0.05보다 작으며, GFI, AGFI, NFI, NNFI의 값들이 .9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가설이 설정된 연구모델은 실제 분석 자료와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표 3>.

실패에 대하여 반응하는 개인특성은 평생학습자의 학업과 직무 성공에 공통으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에 반응하는 개인의 경향성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앞서의 연구들과 일치한다(김아영, 2002; 조규선, 2000). 그리고 직장생활과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을 병행하는 평생학습자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사용에 있어서 상호 상쇄(trade-off)적인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패내성과 같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고유 특성은 그러한 제약적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장에서의 직무성공과 학교에서의 학업성취를 모두 높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평생학습자는 학업성취도나 직무성공에서 모두 낮은 결과치를 얻었다.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평생학습자는 주어진 자원 제약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 환경에서의 성과 결과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와 직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이나 에너지 등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학습된 무기력이나 실패내성과 같은 개인특성이 두 개의

성과 변수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직무성과에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검증되었다. 평생학습자의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직무성과 향상에 있듯이 평생학습자의 학업을 통한 지식의 성취는 직무성과를 높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량구조모형 분석 결과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은 결과변수인 직무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은 학업성취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직무성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학습된 무기력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는 각각 -.11, -.24이었다. 실패내성이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총효과는 각각 .14, .22였다.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내성이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하여 직무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각각 -.02, .03이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0이었다.

V.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본 연구는 직장인으로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평생학습자의 실패에 대한 반응성향이 그 성과 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된 무기력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으며,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평생학습자일수록 학업 상황이 나 직장 상황에서 모두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 준다. 또한 학업성취도가 직무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학습을 통하여 성과를 높이려는 평생학습의 취지가 잘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생학습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평생학습자는 학교와 직장이라는 두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 시간 등 물리적인 조건에서 양

쪽에 충분히 자원을 배분할 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그 결과 변수인 학업성취도와 직무성과를 함께 높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고 있다. 만일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평생학습자는 지식근로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평생학습자는 직장과 학교에서 일정하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 쓰고, 양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호 경합을 벌이는 상충(trade off) 관계의 조건 하에서 학습을 통하여 직무성과를 높여야 한다.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개인 고유의 특성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직무성과와 학업성취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바람직한 성과를 얻어 낼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학업에서의 성공과 직무에서의 성공 둘 다 거두기는 쉽지 않지만 실패에 굴복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끈기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에 대하여 반응하는 개인 성향은 공부를 하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평생학습자가 갖고 있는 고충을 극복하면서 학교와 직장에서 성과를 얻어내는 데 기여하는 개인 고유의 특성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실패를 견뎌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어 준다. 기업은 실패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패내성과 같은 개인 고유의 특성은 성인이 되어 쉽게 습득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꾸준히 실패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은 선발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내성을 측정하여 실패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미리 걸러낼 필요가 있다. 신입과 경력직 입사과정에서 그리고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실패에 대해 관용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실패에 대해 건설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직무성과 측정의 경우 자기 보고식 성과측정이었다. 회사의 내부 자료를 이용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자아효능감(self efficacy)이나 자기통제(self-control) 등과 같은 보다 더 많은 개인 특성 변수를 포함하여 학업성취도와 직무성취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학습자의 성과지표로서 학업성취도와 직무성취가 연구에 포함되었으나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성과관련 변수로서 성공적인 전직이나 창업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평생학습자로서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표본을 학위과정이 아닌 일반 평생교육 학습자로 범위를 넓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요즘 일을 하면서 학습하는 평생학습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평생학습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1] 김대복 (2004),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조직지원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자기유능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김아영 (1994), 한국형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제32권, 제3호, 59-75.
- [3]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제11권, 제2호, 1-19.

- [4]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제15권, 제1호, 157-184.
- [5] 김아영, 주지은 (1999), 학습된 무기력, 실패내성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제29권, 157-176.
- [6] 김영옥 (2007),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교사의 의식조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영현 (1999), 기업의 조직분위기가 직무만족과 직무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금오공과대 석사학위논문.
- [8] 박경환 (2006), 산업현장에서의 학습된 무기력과 직무성취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와상담, 제1권, 제1호.
- [9] 박미은 (1998), 사회사업실천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론의 적용가능성, 정신보건사회사업, 제5권.
- [10] 배오식 (2001), 임파워먼트 지각에 따른 특성과 결과 변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11] 손준상 (2001), 조직특성 및 개인특성이 판매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과학연구, 제8집.
- [12] 신기명 (1990), 학습된 무력감 진단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13] 이순복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성에서.
- [14] 이연숙 (2002), 자아탐색 프로그램이 실패내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조규선 (2000),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실패내성의 직무수행에 대한 예측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주용석 (2003), 기업내 e-learning 전이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 논문.

[국외 문헌]

- [1] Abramson L. Y, M. E. P. Seligman, and J. D. Teasdale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

- mans : Critique and reformu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681-687.
- [2] Behrman, D. N. and W. D. Perreault Jr. (1982),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Industrial Salespers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0, 355-370.
- [3] Boyd, T. L. (1982),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 A comparison and test of learned helplessness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738-752.
- [4] Clifford, M. J., M. Fick, and J. Bennett (1991), Motivational predictors of college achievement, *Paper presented at the AERA annual meeting*.
- [5] Clifford, M. M. (1984), Thought on a theory of constructive failure, *Educational Psychologist*, 19, 108-120.
- [6] Clifford, M. M., A. Kim, and B. A. McDonald (1988), Responses to failure as influenced by task attribution, outcome attribution, and failure toleranc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57, 19-37.
- [7] Dweck, C. S (1975), The role of expectations and attributions on the alter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674-685.
- [8] Fosco, E., and J. H. Geer (1971), Effects of gaining control over aversive stimuli after differing amounts of no control, *Psychology Reports*, 29, 1153-1154
- [9] Frankel, A., and J. L. Snyder (1978), Poor performance following unsolvable problems : Learned helplessness or egot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415-1424.
- [10] Hiroto, D. S. (1974), Locus of control and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2, 187-193.
- [11] Hiroto, D. S., and M. E. P. Seligman (1975), Generality of learned helplessness in m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11-327.
- [12] Kim, A. and M. M. Clifford (1988), Goal source, goal difficulty,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s predictors of response to failur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58, 28-43.
- [13] Kuhl, J. (1981), Motivational and functional helplessness : The moderating effect of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55-170.
- [14] Kuhl, J., and M. Weiss (1984), Performance deficits following uncontrollable failure : Impaired action control of global attributions and generalized expectancy deficit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ogical Research, Munich. FRG.
- [15] Roth, S., and L. Kubal (1975), Effects of non-contingent reinforcement on tasks of differing importance : Facilit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680-691.
- [16] Sedek, G., and M. Kofta (1990), When cognitive exertion does not yield cognitive gain : Toward and informational explan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729-743.
- [17] Seligman, M. E. P. (1975), *Helplessness :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 W. H. Freeman.
- [18] Tennen, H., P. E. Drum, R. Gillen and A. Stanton (1982), Learned helplessness and the detection of contingency : A direct test,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50, 426-441.
- [19] Thornton, J. W. and P. D. Jacobs (1972), The facilitating effects of prior inescapable unavoidable stress on intellectual performance, *Psychonomic Science*, 26.
- [20] Wortman, C. B. and J. W. Brehm (1975), Response to uncontrollable outcomes : an integration of reactance theory and the learned helplessness model, In Berkowitz, L.,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New York : Academic Press.

● 저자소개 ●



박경환 (Kyung-Hwan Park)

충남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KAIST에서 경영공학전공으로 Post Doc. 과정을 마쳤다. 대우정보시스템 인사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한국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경기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공익위원으로 있다. 경영학연구 등에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관심분야로는 산업 및 조직 심리 분야이다.